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의 눈을 뜬 자는 육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멀리서도 보고 행한다.
2. 육의 눈은 1차원, 마음의 눈은 2차원, 영의 눈은 3차원이다.
3. 육의 눈으로 봐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2차원의 것을 전혀 못 본다.
4. 나무를 보는 자는 육의 눈을 뜬 자요, 과일을 보는 자는 마음의 눈을 뜬 자요, 과일의 주인을 보는 자는 영의 눈을 뜬 자다.
5. 월명동 자연성전도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떠서 나의 육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만든 것이다.
6. 초가집 돌 작품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의 눈으로만 보다가 내 마음대로 돌을 깨서 하찮은 목적에 쓰려고 포클레인으로 때려 댔다. 이때 주님은 포클레인이 고장 나게 하셨다. 고로 돌을 못 깨고 중지하고 그냥 월명동으로 신고 왔다. 그 후에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다시 보니, 선생이 살았던 초가집 모양의 돌이었다. 7톤이나 되는 수억 짜리 대 작품 보화였다. 모두 마음의 눈을 떠야 제대로 본다.
7.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 본래의 가치대로 보여 그것을 쓰는 곳도 전혀 달라졌다.
8.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마음의 눈을 떠서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라.
9. 자기 자신도 마음의 눈을 떠서 보면 개성의 보화임을 깨닫고, 절대 육적으로 생각한 대로 자기를 쓰지 않는다.

10. 길바닥에 돌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수석에 마음의 눈을 못 떴서 그 돌을 짓밟고 다녔다. 그런데 수석에 마음의 눈을 뜬 자가 가져갔다. 실상 그 돌은 수석 찌리였다. / 모두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보아라. 길바닥에서 짓밟히는 수석보다 낫다. 그 가치가 하늘까지 솟아 있다. 그러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마음의 눈을 못 떼기 때문이다.

11. 나무에 마음의 눈을 못 떼었을 때는 1억이 넘는 분재 소나무를 잘라 버리려 했다. 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때는 돌에만 눈을 뜨고 나무에는 눈을 뜨기 못했을 때다. 톱으로 자르려 하니 톱이 없었고, 낫으로 자르려 하니 풀을 베는 낫이라서 나무를 자르다가 낫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날은 못 자르고 말았다. 내가 나무에 대해 소경이라 모르고 행하니, 성자 주님께서 내가 못 하도록 상황을 트셨다. / 그러다가 소나무를 심는 데 마음의 눈을 못 떴서 심는 대로 소나무가 죽어 낙심할 때, 성자 주님께서 순간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깨달았다. 지난번에 바위 위에서 자란 소나무가 생각났다. ‘아~ 그 바위에 있는 소나무를 자르지 말고, 소나무가 자란 바위째로 갖다 놓으면 100% 살겠다.’ 했다. / 바로 그날 가서 포클레인으로 바위를 들어다가 월명동으로 옮겨서 자연성전 잔디밭의 분재로 갖다 놓았다. / (사진 보여 주면서) 이 소나무는 납작 소나무로서 천연기념물 나무다. 그 값은 다이아몬드 값이다. 성자 주님께서 가꿔 오신 나무로 200년 이상 길러 온 소나무였다. / 모두 저마다 바위에 난 분재 소나무와 같다. 귀히 보아라. 마음의 눈을 뜬 자가 보고 말해 주니, 너 자신을 귀히 여기고 그 몸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12. 마음의 눈을 뜬 누가 그 소나무를 바위와 함께 7000만 원에 팔라고 했다. 주님이 내게 나무에 마음의 눈을 떠 깨닫게 하여 그 값이 다이아몬드 값인지 알고 가지고 왔다. 고로 누가 팔래도 안 팔았다.

13.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눈을 못 뜬 자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헐값에 사가고 좋아하고, 판 자는 팔았다고 좋아한다.

14. 내 고향 지방리 시골 마을에 장이 열렸다. 그곳에서 어떤 할머니가 밭에서 캔 도자기 주전자 하나를 놓고 팔려고 하고 있었다. 사기로 만든 파란색 주전

자였다. 값은 3만 원이었다. 해가 기울도록 앉아 있었으나 안 팔렸다.

이때 골동품 전문가인 한 남자가 그 주전자를 보고 할머니에게 “그것이 집에서 쓰던 주전자예요?” 하고 물었다. 할머니는 “우리 아들이 받을 파다가 돌이 받쳐서 캐내니, 그 밑에 이 주전자가 있어서 캐 왔어. 팔아서 담배나 사서 피웠다고 하며 팔아 오라고 해서 팔러 왔어. 그런데 안 팔려.” 했다. 골동품 전문가는 “얼마에 팝니까?” 물었다. 할머니는 “3만 원이야.” 했다. 골동품 전문가는 “너무 비싸요.” 했다. 할머니는 “내 아들이 3만 원 안 주면 팔지 말라고 했어.” 했다. / 할머니도, 그 아들도 도자기에 마음의 눈을 못 뜬 소경이었다. 그 주전자를 사려고 하는 자는 골동품에 눈을 뜬 전문가였다.

그는 그 도자기를 3만 원 주고 샀다. 그 도자기는 고려청자였다. 그때 돈의 가치로 한화 3500만 원이 나갔다. 지금 돈의 가치로 따지면 몇억이 된다.

이날 도자기를 산 자는 돈복이 떨어지는 날이었다. 혹시 누가 볼까 봐 얼른 도자기를 사서 빨리 시장을 떴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 “우리 아들이 이번 주까지 등록금을 안 내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인삼을 급히 팔아야 하는데, 보아 하니 장사꾼같이 보여서 말해 봅니다. 인삼을 원가에 줄 테니 사 가세요.” 했다.

골동품을 산 남자는 ‘때가 좋다.’ 생각하고, 인삼 한 자루를 헐값에 사서 자루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자기를 넣었다. 그 자루를 메고 다음날 막차를 타고 지방리에서 나왔다. 장날이라서 버스는 만원이었다.

그는 버스 뒷자리에서 도자기가 든 자루를 꼭 쥐고 정신 차리고 있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버스를 타다 보니 졸다가 어느새 곤한 잠이 들었다. 그러다 자루를 손에서 놓쳤다. 마지막 장날이라서 버스는 있는 대로 사람들을 다 태워서 서로 밀리고 치였다. 그 바람에 바닥에 떨어뜨린 도자기가 든 자루를 사람들이 짓밟았다. 자루 주인은 자고 있느라 이 사실을 몰랐다.

목적지에 다 오기까지 자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며 그 남자를 툭툭 치며 깨우면서 “다 왔어요.” 했다. 이에 남자는 잠에서 깼다. 놀라서 잠에서 깨어 자루를 찾으니 없었다. 자기 손에 쥐고 왔는데, 자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의자 밑에 들어가 있었다. 당황해서 자루를 끌러 보니, 이미 도자기는 완전히 다 깨져 있었다. 의자의 쇠 부분에 부딪히고 박은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실컷 울고 반은 미쳐서 몇 달을 고생하며 또 도자기를 사러 다녔다. 이때 그 남자는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 남자는 내게 “혹시 받을 파다가 나온 그릇이 있으면 사려고 왔습니다.” 했다. 나는 회골에서 파낸 질그릇이 생각나서 3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안산다고 했다.

내가 남자에게 “나는 도자기에 눈을 떠서 다 알아.” 했더니, 남자는 웃으면서 “그래요?” 했다. 점심으로 고구마를 대접해 주니, 먹고서 자기 좀 잘 봐 달라고 했다. 나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신앙생활 해.” 했다.

이때 그 남자가 지난날 도자기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에게 말했다. “3500만 원이나 되는 비싼 것을 아무리 파는 사람이 모른다 해도 어떻게 3만 원에 사냐? 더 줘야지.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깨진 것이야. 앞으로 그런 물건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몰라도 제값의 3분 2는 줘.” 했다.

이 사연을 섭리사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성자 주님께서 선생에게 그 남자를 만나 그 사연을 듣게 하신 것이다.

* 다시 말한다. 모두 저마다 작품이다. 그러니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귀히 보아라. 마음의 눈을 뜬 자가 보고 말해 주니, 너 자신을 귀히 여기고 그 몸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또한 매사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